

엔데믹 시대, ‘공간’ 읽기를 통한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

이송희*

-차 례-

1. 머리말
2. 삶과 공간의 관계 읽기
 - 2.1 공간과 삶의 관계
 - 2.2 글쓰기의 촉매제로서의 그림과 사진
3. 공간을 사유하는 교수학습 과정
4. 공간 쓰기의 실제
5. 결론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감염병 시대 달라진 공간과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 삶을 성찰하고 소통하기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를 담고 있다. 단순히 감염병 전후의 공간 변화 제시가 아니라 별다른 생각 없이 누려왔던 공간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을 탐색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에게 공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하며 우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제공한다. 이 글의 목적은 감염병 시대 공간의 재구성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대학 글쓰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글쓰기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필자는 감염병 시대의 공간 글쓰기의 촉매제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어윈 올라프의 사진 등을 활용했다. 두 작가 모두 대중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만큼 글쓰기 촉매제 역할 외에도 학습자들에게 인문 교양을 채워줄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간 읽기를 통한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는 학습자들에게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문을 열어 준다. 또한 공간 읽기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삶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관계와 변화 등에 주목하게 하였다. 코로나 사회 속의 공간 읽기와 공간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공간이 갖는 공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 내고, 공간의 폭넓은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에드워드 호퍼, 어윈 올라프, 공간 쓰기, 글쓰기 촉매제, 감염병, 공간, 글쓰기, 소통, 성찰

1. 머리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감염병 시대 속에서 대면보다 비대면이라는 격조한 삶의 방식을 경험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감염병 시대를 엔데믹endemic이라 한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각종 콘텐츠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히 양식적 변화만이 아닌 생활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간의 변화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한계를 경험하게 했으며, 이는 바로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 우울감,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졌다. 개인이 소비하던 물리적 공간의 영역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공간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그 바뀐 공간이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¹⁾ 물론 이 공간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영역은 아니지만 공간의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면, 공간은 있음과 없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개념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간은 비어 있는 것과 비어 있지 않은 것이 함께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변화는 인간 삶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관여하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²⁾는 말은 공간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간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감염병의 시대는 기존의 공간 구조를 바꾸면서 권력 구조를 해체 혹은 분산시키기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감염병 시대 달라진 공간과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 삶을 성찰하고 소통하기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감염병 전후의 공간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별다른

1) 홍단비, 「팬데믹 시대, ‘공간’을 주제로 한 글쓰기치료 수업 모형 연구」, 『문학치료연구』 62, 2022, 165면.

2) 유현준, 『공간의 미래』, 을유문화사, 2021, 5면.

생각 없이 누려왔던 공간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을 탐색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에게 공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다주며 우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술적·실용적 글쓰기의 중요성만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장감 있는 주제(사건)에 대한 비평적 사유와 실천적 글쓰기는 필요하다. 학습자로 하여금 시사적인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시사적인 문제와 공간을 결합하는 글쓰기는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감염병 시대 공간의 재구성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대학 글쓰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글쓰기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감염병 전후의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 인류가 어떤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작업은 부족하다. 현시대의 담론을 토론하며 글쓰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고민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감염병 시대의 삶을 공간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시도는 현재의 삶에 대한 진단이면서 향후 우리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성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의와 관련된 공간과 글쓰기를 결합한 논의는 홍단비³⁾, 김중철⁴⁾, 박현이⁵⁾, 이효숙⁶⁾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자신의 공간 읽기와 글쓰기의 행위를 접목한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홍단비의 논의는 자신을 둘러싼 공간과 기억 속 애착이 스민 공간, 현재 자신에게 가장 위안이 되거나 의미 있는 공간 등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공간을 사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힌

3) 홍단비, 앞의 논문.

4) 김중철, 「공간 읽기와 성찰적 글쓰기」, 『사고와 표현』10(1), 사고와 표현학회, 2017.

5) 박현이, 「공간의 재발견을 통한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사례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7,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17.

6) 김효숙, 「장소성 기반 자기 성찰 글쓰기 수업 모형 개발」, 『문화와융합』 46, 한국문화 융합학회, 2017.

다. 또한 김중철의 논의 역시 ‘나의 공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찰적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성찰적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감염병 전후 공간의 변화를 통해 생활 전반의 문제를 성찰하고자 하는 본 논의의 취지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동기부여를 위해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의 글쓰기 수업 사례와는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 필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진지하고 반복적인 반성과 성찰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코로나19 담론과 인문학적 성찰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 현재에 대한 인식과 재난의 연속성으로 인한 총체적 사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혹은 재난을 통한 반성과 성찰이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재난을 사유한다는 것은 근대 이후의 역사적 삶의 궤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뜻⁷⁾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인문학의 성격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왜 우리가 코로나19와 마주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성찰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에 대한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까닭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의 확장을 공간의 변화로 읽는 한 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필자는 감염병 시대와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융합적 글쓰기 모델을 제안하면서 교육적 실천의 가치를 찾는 것에 목표를 둔다. 지식융합 시대에 매체의 다양한 활용을 글쓰기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글쓰기가 단순한 기술적 행위나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서 명료한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의 성찰적 사고가 더욱 필요한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엔데믹 시대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유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글쓰기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인문

7) 강의혁, 「재난 시대 인문학을 생각하며」, 『안과 밖』 49, 2020, 210면.

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

2. 삶과 공간의 관계 읽기

2.1 공간과 삶의 관계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의 정의는 물리적·외형적 조건보다 인간적 조건에서 더 중요⁸⁾하다는 의미를 품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관계를 맺고 일하는 모든 생활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공간을 경유하며 살아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소유 혹은 애착은 공간에 얽힌 기억 혹은 경험 때문인데, 그만큼 공간은 인간의 기억과 의식이 담겨 있는 절대적인 그릇과 같다. 따라서 공간 읽기와 공간에 대한 지각과 인식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 투쟁의 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감염병 시대의 공간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생존 투쟁의 장이었다. 그것은 모여야 살 수 있었던 인간 사회를 반대로 모이면 위험한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⁹⁾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이 이루어지는 ‘집’은 바깥 생활을 고스란히 가져온 공간으로서 재구성되는 새로운 생존 투쟁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와 미디어 등의 발달로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겹쳐진 수많은 공간들¹⁰⁾을 집으로 데려온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고정된 개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막연하고 모호하면서도 개별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감염병은

8) 김종철, 앞의 논문, 142면.

9) 유현준, 앞의 책, 8면.

10) 홍단비, 앞의 논문, 167면.

인간 삶의 공간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감염병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상공간은 동시에 생성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관계 역시 단순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의 의미와 개인의 정체성을 탐색하기보다는,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등 상업적 메커니즘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진 공간들을 소비하게 될 우려가 크다.¹¹⁾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새로운 공간의 생성과 변화는 인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공간 속에서 사람은 형성의 주체지만 동시에 공간을 구성하는 객체”¹²⁾이기도 하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과 욕망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재구성하기도 하지만 공간의 특성이 인간의 의식과 욕망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감염병이라는 외부 조건과 상황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된 공간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필자는 감염병 시대가 가져온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횡행한 마스크를 쓴 삶을 대학생들의 시각과 정서로 공유해 보고자 하였다.

감염병 시대의 공간은 그야말로 불안과 고독, 소통 부재 혹은 단절, 우울감, 피로감, 소외감 등의 정서를 동반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회자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션』,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도시 빈민들의 삶을 그린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이 공간의 변화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다양한 각도로 담아낸 사진작가 어윈 올라프의 작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텅 빈 주차장과 사람 없는 마트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간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생활 방식에 공감하게 한다. 코로나 시대의 삶을 그린 문학 작품 등에서도 대부분 공간의 단절과 폐쇄, 소통의 부재, 고립감 등을 행간에 담는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고, 일부는 코로나19 시대의 고독과 소외 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대중성을 얻고

11) 위의 논문, 168면.

12)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울아카데미, 2014, 20면.

있다. 필자는 대학생 학습자들이 코로나19의 삶을 단순히 유행처럼 생각하거나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코로나 전후 자신이 지나치는 공간을 배열해 보도록 유도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 세기의 '역병'이 함축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웃과 소통하는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2.2 글쓰기의 촉매제로서의 그림과 사진

공간에 대한 글쓰기 활동 전, 글쓰기의 촉매제로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고독과 단절된 공간을 그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코로나 시기의 공간을 담은 사진 읽기를 통해 공간과 삶의 관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 속 공간은 단순히 텍스트 내용을 위한 배경 차원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 표상으로서의 의미 해석 차원으로 행해진다. 공간 자체가 작품 내 인물의 정체성이나 시대적 배경, 사건의 성격을 담보하면서 작품 전반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³⁾

필자가 공간을 주제로 한 글쓰기의 동기부여를 위해 활용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1·2차 세계대전 사이 미국 도시민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고독감과 절망감을 환기시킨다. 그의 작품 속 장소들은 커다랗고 텅 비어 있으며, 자연광과 인공광의 대조로 인해 황량하고 삭막해 보이는데, 마치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의 거리두기를 떠올리게 하여 회자되었다. 호퍼의 대중적 인기는 평범한 일상을 시간을 초월한 듯한 장면으로 표현할 줄 알았던 그의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그는 일상적인 모습을 인간 조건에 관한 의미심장한 진술로 바꾸어놓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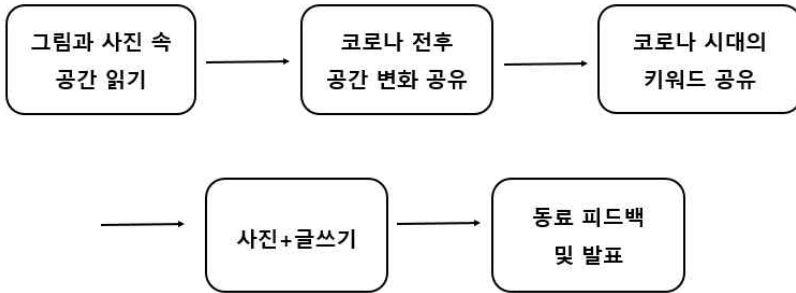
한편, 인종, 신분, 동성애, 종교, 관습 등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를 날카롭고 자유롭게 다뤄온 어윈 올라프의 사진 역시 코로나 시대의 고독과 거리두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작가 모두 대중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만큼 글쓰기 촉

13) 김중철, 앞의 논문, 144면.

매체 역할 외에도 학습자들에게 인문 교양을 채워줄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림은 내면의 심상을 색과 빛과 선으로 형상화하는 장르이며, 사진은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해 내는 기술적 측면을 동반하는 장르다. 한편 글쓰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이나 사진은 모두 감각적인 생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림은 내면의 심상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림과 사진 텍스트를 학습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글쓰기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짧은 시간에 소통이 가능하며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시·공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과 사진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돌아보며 코로나 전후의 상황을 대비해 볼 수 있다. 작품을 보며 현재의 시각에서 느끼는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코로나19로 연상되는 키워드를 구성해 보는 자유로운 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알 수 있는 일상을 카메라 렌즈에 담게 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엔데믹 상황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글쓰기로 담고자 한다. 사진은 이미지로써 표면적으로 보면 문자언어로 표현하는 글쓰기와는 다르지만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가 찍은 사진들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글쓰기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사진과 글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성과는 디지털 글쓰기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과 사진을 통해 성찰과 치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제안하는 본 연구는 감염병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총 3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대학생 글쓰기 수업 시간의 교수학습 사례로 총 6차시의 시간을 요구한다. 글쓰기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공간을 통한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5단계

글쓰기 수업에서 사진과 그림을 활용한 이유는 매체와 시각적 자료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동기감응이 더 빠를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차시는 그림과 사진 등을 감상하며 공간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학습자의 느낌을 표현하기 전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림과 사진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다. 2차시에는 코로나 전후 달라진 개인의 공간과 사회적 공간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3차시는 2차시의 연장선에서 코로나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나열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 나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유발된 개별화된 정서 등을 모두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차시의 변화된 공간 공유와 3차시의 키워드 공유를 통해 코로나 시기 자신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꺼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4차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진을 제시하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발표를 하며 마무리한다.

이 글에서는 엔데믹 시대의 공간 읽기를 통한 글쓰기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간 쓰기’라는 제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공간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써의 ‘쓰다’와 글쓰기의 ‘쓰다’의 개념을 통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과 사진이라는 다른 장르의 융합을 통해 엔데믹 시대의

일상을 돌아보고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로 이어가는 교수학습 과정은 무엇보다 공동체적 담론을 이끌어 내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6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본 수업은 중간고사 이후 10~11주차 즈음에 진행한다. 공간을 기술적인 글쓰기 행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수반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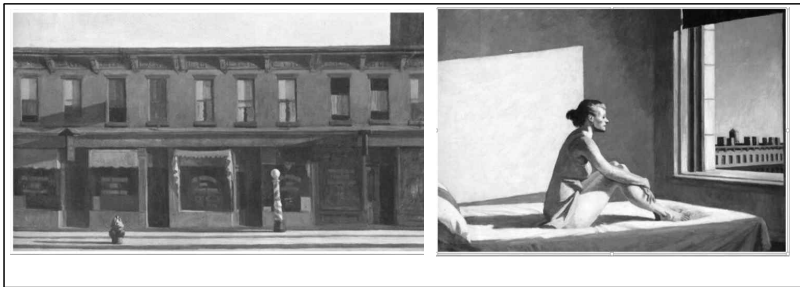
3. 공간을 사유하는 교수학습 방법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간 읽기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해이면서 소통과 성찰의 행위다. 이러한 공간 읽기의 선행 활동 자료로 활용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현대인의 고독과 단절, 고립과 슬픔 등을 주제로 한 삶을 담고 있어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더욱 사랑받았다. 호퍼는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도시민들의 삶을 특징지은 고독감과 절망감 등을 표현한 20세기 미국 사실주의 작가다. 평범한 일상을 의미심장한 진술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우리의 일상처럼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준다. 특히 작가는 아파트에 홀로 갇힌 외로운 사람들, 텅 빈 도심의 상가,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는 여인, 홀로 주유를 하는 남자,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신문을 보거나 혼자 차를 마시는 사람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렇듯 호퍼 그림의 큰 주제는 내부, 외부, 창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홀로 있거나, 주변인과 소통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인물들과 아이러니하게 어울린다. 창을 중심으로 한 실내공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거대한 도시의 황량한 공간, 원시적인 자연공간 등의 구성¹⁴⁾이 엔데믹 시대를 환기하게 한다.

학습자들에게는 호퍼의 그림을 설명하기 전 그의 그림이 1930년대 당시 미국경제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찾아온 개인의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 상실감과 고독감 등을 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14) 김종진, 「에드워드 호퍼 회화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16(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13~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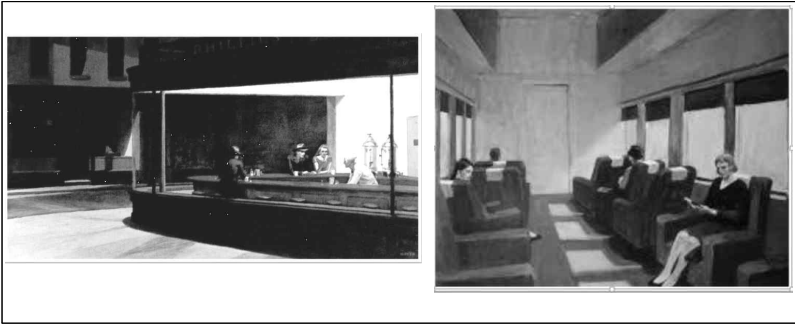
다. 이러한 특성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현대에도 고스란히 경험되고 있는 곳이라는 의식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학생들의 삶은 상대적 빈곤 속에서 더욱 고독해지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삶이 휘청일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의 공감을 더욱 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진행된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사회적 환경은 그림과의 거리를 좁혀 주면서 그림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효과를 준다. 코로나 시대의 공간을 사는 학습자들은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인적 드문 골목과 비어 있는 카페, 텅 빈 영화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호퍼는 고립이나 외로움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그렸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학습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존의 문제를 고민해 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 받게 될 것이다.



<그림1> 일요일 이른 아침(1930) (왼), 아침의 태양(1952) (오)

왼쪽 그림은 이른 아침 텅 비어 있는 도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밝고 어두운 색채의 대비를 통해 도심의 공허함을 극적으로 표현한 대표작 중 하나다. 일요일 아침을 묘사하는 ‘빛’과 한적함과 공허함, 외로움을 묘사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볼 켜진 상점과 인적 드문 거리의 모습, 밝고 어두운 색채의 배치 등을 보며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기의 도심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잘 정돈된 침대의 중앙에 앉은 여자가 큰 창문을 통

해 밖을 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햇살이 가득한 것으로 보아 한참 등교하여 강의를 듣고 있거나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을 시간으로 추정된다. 느즈막한 시간에 일어나 비대면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모습과 겹쳐 보게 한다. 정지된 공간의 외부와 내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창밖만 응시하고 있는 여인은 어떤 목적을 상실한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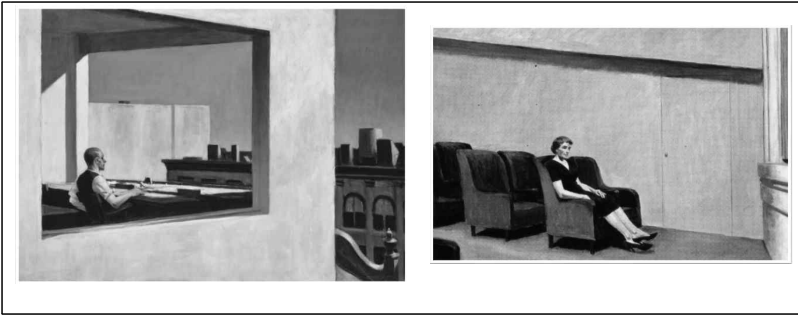


<그림2>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1942) (왼), 객석 열차(1965) (오)

호퍼의 그림 중 가장 대중적인 왼쪽 그림은 실제 맨해튼 근처의 어느 작은 식당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호퍼는 여기서 현대인의 큰 고독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 식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님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다. 통유리 바깥은 어둡고 텅 비어 있는 것이 공간과 색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식당 안 사람들의 표정 또한 굳어 있다. 이 그림을 통해 학습자들은 외롭고 답답하여 나왔지만 정작 누군가와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 핸드폰만 들여다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오른쪽 그림을 본 학습자들은 지하철 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공감대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실제로는 호퍼가 사망하기 2년 전 작품으로 높은 천장, 완벽하게 닫힌 문, 외부의 전경이 보이지 않는 창에서 쏟아지는 빛 등 객실 내부는 촬영을 위해 의도된 세트장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⁵⁾ 온기는 없고 질감을 잃어버린 색채들, 각자의 행동에 집중한 사람들의 표정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김선영, 「에드워드 호퍼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색채표현 특성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7(1), 2013, 99면.

하는 익숙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림3> Office in a Small City(1953) (왼), Intermission(1963) (오)

다음은 도심 속 사무실 내부의 풍경이다. 이것은 코로나 시국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로 사무실 구성원 모두가 출근하지 않거나 등을 지고 벽 혹은 창을 응시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휴게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오른쪽 그림도 코로나 시기 인적이 드문 휴게실을 고스란히 재현한 듯한 느낌으로 학습자들에게 현장감을 안겨 준다. 이렇듯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고독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삶을 경험한 학습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공간 쓰기의 동기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학습자들은 핸드폰을 더 많이 들여다 보며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 사이버 공간을 배회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강의실이 오히려 더 낫선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한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그린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이 공감하는 그림을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을 담고 있는지, 공간의 구조나 사물 형태, 인물의 표정, 색채 분위기 등에 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이렇듯 호퍼의 그림은 일상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난해한 그림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호퍼의 그림과 함께 어윈 올라프의 사진 중 코로나

시대의 풍경을 그린 <만우절>(2020) 시리즈를 공유하며 공간을 현대
로 데려온다.



<그림4> 어윈 올라프의 <4월의 바보 2020-오전 9시 45분> (왼),
<4월의 바보> 동영상물의 스틸 컷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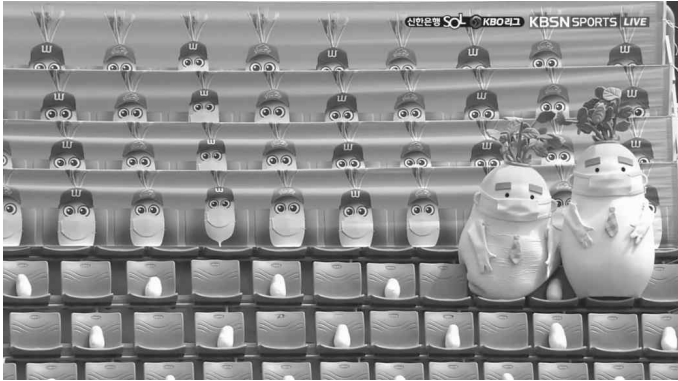
왼쪽 사진에는 텅 빈 마트의 주차장과 빈 카트를 밀고 가는 작가가 등장하고, 오른쪽 사진에는 격리된 방 안에서 원탁 주변을 서성거리며 불안해하는 작가가 등장한다. 에드워드 호퍼와 어윈 올라프 외에도 이 시대를 그린 작품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의 감성과 잘 어울리면서 현시대의 상황과 소통이 되고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 학습자들은 호퍼의 그림에 등장하는 휴게실, 지하철, 카페, 방, 텅 빈 거리, 사무실 등과 같은 공간과 안과 밖으로 구획되는 공간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큰 창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안과 밖, 건물의 현관, 빛과 어둠의 대비 등의 배치도 눈여겨 보았다.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의 공간을 돌아보며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자들이 주로 언급하는 키워드는 비대면, 거리두기, 줌 수업, 자가격리, 마스크, 백신, 방역, 보건소, 원룸, 침대, 불안, 기침 등이다. 코로나 시기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특정 공간을 형성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쓰기 활동을 이어가기 충분하다. 글쓰기 활동 전에 기억해야 할 것으로 코로나 시기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긍정적인 시간을 확보했음을 기억해야 함을 환기했다. 가령, 가족과의 소중한 식사 시간, 동물들을 위한 깨끗한 자연환경, 방역을 해주는

따뜻한 손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등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품어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 강의실 분위기에 따라 이 모든 활동을 조별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4. 공간 쓰기의 실제

엔데믹 시대, 학습자의 공간을 주제로 한 글쓰기는 일상에 대한 이해이며 시대와의 소통이며 자기 성찰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활동으로서 글쓰기는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 주목하고 자신을 둘러싼 혹은 코로나 시대의 타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공간에 대한 사유와 실존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21년 2학기 C대학교 글쓰기 수업을 듣는 30여 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수학습 과정을 담은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경험한 공간에 대한 사유와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세부 전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공간의 변화를 읽어내는 학습자의 글쓰기 활동은 사진을 첨부하는 과정을 겸한다. 사진은 직접 찍거나 출처를 밝힌 후 첨부하는 자유로운 방식을 취하게 한다.

수강생들이 주로 언급한 공간은 기숙사, 자취방, 집, 침대, 공부방 등의 개인적인 공간과 카페, 영화관, 헬스장, 야구장 거리,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적인 공간, 그리고 줌, 페이스북, 메타버스,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구분된다. 팬데믹 사회에서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공간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 맺기로 나타나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 소비는 자신의 방(침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쓰기 활동의 의도와 취지를 인지한 후 학습자들은 방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을 탐색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코로나 사회는 자기 자신만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공간의 소중함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사회 속에 자신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은 다음의 글을 통해 드러난다. 학습자의 글 중 몇 편을 공유해 본다.



‘무’로 채운 ‘無’ 관중

‘무’로 채운 ‘無’ 관중이라는 것에 착안해 실제 무들을 관중석에 놓은 모습이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시국에 맞추어 무도 거리를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중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야구의 관중석을 채치로 채운 모습은 고난을 웃음으로 극복하게 한다. 또한 이런 구단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마케팅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활용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기도 했지만, 위기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시즌을 개막한 국가가 없을 때 한국의 KBO리그가 개막하였었다. 이때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KBO리그 중계권을 사들여 미국에서 생중계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야구를 외국과 공유하고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야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런 기회는 한국야구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는 하고 있던 일을 못 하게 되었을 것이고 2020년을 위해 세웠던 계획도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야구장의 관중석을 무로 채웠듯이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회를 포착하다 보면 한층 더 활기를 가지고 성장하며 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진출처: 네이버 스포츠 KBO리그 SK 홈경기 영상(2020.05.17.)

코로나19의 확산이 스포츠 경기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글이다. 이 시기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에도 무관중 혹은 극소수의 관객들 앞에서만 공연을 진행했었고, 그조차도 할 수 없었던 연극 무대는 막을 올리지도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우울한 현실을 위트로 담아낸 ‘무’ 관중은 피할 수 없는 감염병 시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A 학생은 이러한 구단의 행보가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가 빼앗아 간 부정적인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시즌을 개막한 국가가 없을 때, 오히려 한국이 KBO리그를 연 것을 예로 들었다. 전 세계로의 생중계를 통해 우리나라 야구를 공유했던 것도 우리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의도를 담은 듯하다.



온라인 수업, 즐거운 변화 속 일상의 행복 찾기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 원격수업,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등의 기술이 세상에 출현한지는 오래 됐지만 미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나 등

장하고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미뤄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새로운 변화를 망설이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변화시켰다. 인간 스스로가 아닌 코로나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울, 외로움, 직접적 소통 단절, 가정불화 등 심리적 문제와 서비스업, 자영업, 관광업 위기 등 경제적 문제, 그밖에 개인, 사회, 국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심리적 문제와 연결해 보면 심리 상담, 개인 컨설팅, 가족 관련 단체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또한, 인간 대 인간, 즉 face to face 분야는 줄어들지만 제약, 인터넷, IT, 배달, 운송업 부분이 발전할 것이다.

첫 비대면 수업을 했던 1학기에는 나도 스트레스를 풀기 힘들다 보니까 족과 말다툼이 잦아졌고 우울함을 종종 느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밤마다 철봉을 하러 집 앞 중학교 운동장을 갔다. 처음엔 턱걸이 5개 정도를 했지만 하다 보니 현재는 10개 이상을 할 수 있다. 운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바뀐 후에는 주민 문화센터에서 수영 기초반에 등록해 배우고 있다. 코로나가 심해져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홈트레이닝이나 가벼운 조깅, 철봉을 추천한다.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변화는 과학시대에 당연히 겪어야 할 변화를 조금 일찍 겪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진작 변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제야 변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야 할 존재이다.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 새롭고 즐거운 변화속, 일상의 행복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자료 2> B 학생의 글과 사진

B 학생의 글은 코로나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 화상 수업 공간을 담았다. 비대면 첫 학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가족들과 마찰도 심하고 우울증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상황에 맞춰 수영도 등록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값지게 활용하는 것은

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유한다. 홈트레이닝과 조깅, 철봉 운동 등을 추천한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오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가는 데 중심을 잡고 가는 글이다.



대화 없는 급식실

이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 각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실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 학교 급식실에는 투명 칸막이가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발생 이후 점심시간에 최대한 대화를 자제해야 하며 배식을 할 때도 2m 띄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개인 등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정부에서 방역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더라도 국민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유행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켜할 것은 마스크 쓰기이다. 손 씻기 역시 마스크 쓰기와 동일하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밖에 잘 나가지 않다보니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가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 또한 극복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게’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에게 자주 연락을 한다. 그리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색칠하기, 청소하기, 운동하기 등 간단한 활동을 하며 무기력증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이다.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료 3> C 학생의 글과 사진

C 학생의 글은 칸막이가 있는 초·중·고교 급식실의 공간을 담고 있다. 일부 대면수업이 실시되면서 대학을 비롯한 각종 기관 등에도 칸막이가 있었다. 대화가 사라진 공간, 각자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학습자는 이러한 단절과 고립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게’라는 말을 인용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등으로 극복하기를 권유한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공간

코로나 19시대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배달음식의 주문량 폭증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의 가격이 15%가량 떨어지면서 플라스틱 처리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했으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되도록 다회용기를 사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 아파트에서는 비닐의 경우 비닐을 분리해서 버리기보다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를 부탁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 의한 조류독감이나 산속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멧돼지가 옮기기도 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결국은 잠잠해진다. 이에 더해 비교적 최근의 감염병인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처럼 언젠가 이겨내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감기처럼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므로 손 소독이나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처럼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지키며 행동하다 보면 코로나도 자연스럽게 극복되리라 믿는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헤럴드 경제)

<자료 4> D 학생의 글과 사진

D 학생의 글은 심각해져 가는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다. 글쓴이는 실제 한 아파트에서는 비닐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도 중요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당연한 맥락이지만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기에 중요하다. 잘못된 현대인들의 습관을 지적한 시사성 짙은 글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공간

우리는 위의 사진에서 코로나 시대에 따른 3가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변화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태어나는 친구들은 마스크 없는 세상을 책 속에서만 맞이할까봐 무섭다. 두 번째는 qr코드이다. 이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는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지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이다. 코로나의 대표적 초기 증상이 발열이므로 빠른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건물 입구에 설치하곤 한다. 병원에 갈 때나 재던 열을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재곤 한다.

우리는 변화한 생활에 익숙해지기 힘들다. 아직 qr코드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매일 쓰는 마스크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가 다 같이 협조한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를 만들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 밖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집 안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idxno=1302692>

<자료 5> E 학생의 글과 사진

E 학생의 글은 코로나 시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가 자율화된 이후에도 손소독제를 비롯한 몇 가지 용품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이라면 모두 안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을 담아 내면서 결국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익숙해져서 더 이상 어색할 것이 없다.

학습자들은 주로 코로나로 인해 기존과 달라진 공간에 주목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공간의 달라진 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로 주목한 공간은 재래시장, 동네 상점, 대학가 식당, 기타 빈민촌 등도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마음 아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한다. 결국 ‘나’에서 비롯된 공간은 ‘우리’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글의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반성과 성찰,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 공동체의 노력으로 인한 코로나 극복,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건강한 생활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위기를 운동이나 요리를 비롯한 취미생활로 극복하고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다른 학습자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한다. 밀폐와 고립, 억압으로 인식되던 공간은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희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마음을 나누는 서로의 힘이 재래시장과 같은 서민적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렇듯 공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며, 아늑함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각박한 생존 경쟁의 공간보다 안식을 느끼는 공간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공간이 일부 제한

되어 있으므로 안정된 공간은 자유를 허용한 공간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공간을 돌아보면서 시선을 나에게서 밖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동료 감상 및 발표는 학습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부 학생들에 한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동료 학생들은 이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취했다. 30여 명 내외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을 공유하는 말하기 활동은 효과적이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이루어진 ‘공간 쓰기’인 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의미를 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변의 여러 공간을 탐색하며 발견의 기쁨과 소통의 중요성, 성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학습자들의 반응은 서로를 따뜻하게 품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졌다.

학술적인 성격이 담긴 글쓰기보다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성찰적 의미가 담긴 글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주로 성실성, 내용 구성력, 주제에 대한 이해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한을 잘 지켰는지 등 형식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성실성, 과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담아냈는지를 보는 표현력,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며 내용을 잘 구성했는지 등을 보는 구성력 등을 들 수 있다. 공간 읽기를 통한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문을 열어 준다. 또한 공간 읽기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삶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관계와 변화 등에 주목하게 한다. 코로나 사회 속의 공간 읽기와 공간 쓰기를 통해 공간이 갖는 공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 내고, 공간의 폭넓은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감염병 시대 달라진 공간과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 삶을 성찰하고 소통하기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를 공유하였다. 단

순히 감염병 전후의 공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생각 없이 누려왔던 공간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을 탐색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에게 공간의 이해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다주며 우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감염병 시대 공간의 재구성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대학 글쓰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글쓰기 체험이 주는 성찰과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감염병 시대의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글쓰기의 촉매제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어윈 올라프의 사진 등을 활용했다. 두 작가 모두 대중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만큼 글쓰기 촉매제 역할 외에도 학습자들에게 인문 교양을 채워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은 내면의 심상을 색과 선과 빛으로 형상화하는 장르이며, 사진은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해 내는 기술적 측면을 동반하는 장르라는 속성도 반영했다.

학습자들이 주로 주목한 공간은 재래시장, 동네 상점, 대학가 식당, 기타 빈민촌 등도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아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였다. 결국 ‘나’에서 비롯된 공간은 ‘우리’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글의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반성과 성찰,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 공동체의 노력으로 인한 코로나 극복,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건강한 생활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 읽기를 통한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는 학습자에게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문을 열어 준다. 또한 공간 읽기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삶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관계와 변화 등에 주목하게 하였다. 엔데믹 시대의 공간 읽기와 공간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공간의 공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 내고, 공간의 폭넓은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Abstract]

Writing of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reading 'space' in the endemic era

Lee, Songhee(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presents an example of a college writing class to reflect on and communicate with our lives while sharing the changed space and daily life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The purpose is not simply to present the process of showing the spati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fectious disease, bu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preciousness and necessity of spaces that have been enjoyed without much thought. This process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learners with an opportunity not only to understand space, but also to look into human nature, and to provide meaning and value to our l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variety of writing experience spaces by sharing college writing examples of what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the reconstruction of spaces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have brought to 'our' lives.

Edward Hopper's paintings and Erwin Olaf's photographs were used as catalysts for convergent writing that combined various genres to tell the story of the era and space of the epidemic. As both writers show the world of popular works, it was judged that it could be a good material to fill the humanities and culture for learners in addition to its role as a catalyst for writing. The writing of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space reading opens the door to broaden the range of various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to learners and to induce humanistic thinking. Also, through space reading, I came to think about my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and I came to pay attention to relationships and changes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It is meaningful in that learners can derive the public and social meaning of space through space reading and space writing in Corona society, and secure opportunities to learn the broad meaning of space.

Key words : Edward Hopper, Erwin Olaf, space write, write catalyst
plague, space, writing, communication, reflection

[참고문헌]

■ 단행본

유현준, 『공간의 미래』, 을유문화사, 2021, 5~8면.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올아카데미, 2014, 20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의혁, 「재난 시대 인문학을 생각하며」, 『안과 밖』 49, 2020, 210면.
김선영, 「에드워드 호퍼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색채표현 특성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7(1), 2013, 99면.
김종진, 「에드워드 호퍼 회화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13~14면.
김중철, 「공간 읽기와 성찰적 글쓰기」, 『사고와 표현』 10(1), 사고와 표현학회, 2017, 142~144면.
김효숙, 「장소성 기반 자기 성찰 글쓰기 수업 모형 개발」, 『문화와융합』 4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박현이, 「공간의 재발견을 통한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사례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7,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17.
홍단비, 「팬데믹 시대, ‘공간’을 주제로 한 글쓰기치료 수업 모형 연구」, 『문학치료 연구』 62, 문학치료학회, 2022, 165~168면.